

#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길 '팔정도'

## 붓다의 눈으로 본 세계

### 실재와 개념 ①



위요기  
공주대 교수

개념은 오문에 충돌하지 않지만 실재는 오문에 충돌하는 것이다. 포도의 그림과 실제 포도는 눈의 문, 혀의 문이나 몸의 문에 와서 충돌하지 않지만 색, 맛, 단단함은 각각의 문에 와서 충돌하고 사라져 버리는 실재이다. 색, 맛, 단단함이라는 물질(무빠)은 일어나고 사라져 단지 17마음 순간 동안 지속될 뿐이다. 이런데 포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함께 일어나는 다른 궁극적 실재들의 성품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개념들이 궁극적 실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성품을 한 번에 한 창구를 통해서 나타낼 때 한 번에 알아차림을 알아차려야 한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창구를 통해 나타나는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깨달아야 한다. 각각의 물질은 단지 17마음순간 동안만 유지되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물질은 서거나 걷거나 어떤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손을 드는 시간동안에 이미 17마음순간 이상이 지나가 버린다. 사람들이 걷고 그들의 손을 들고 하는 것을 보지만 실재는 물질들이 일어나고 즉시 사라지고 또 다른 물질들에 의해 연이어진다. 대상인 색은 안문인식과정의 마음에 나타나고 나서 생명연속성(삼재의식)들이 사이에 일어난 뒤 많은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걷고 손을 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마음의 17순간은 극도로 빨리 사라져 버린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듣는 순간과 보는 순간 사이에는 17마음순간 이상의 간격이 있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색은 17마음순간 유지되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사라져 버려야만 한다.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것들은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는 다른 마음순간들이다. 물질들은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것들이 연이어 진다. 우리가 사람들이 손을 들거나 걷거나 하는 것을 볼 때 내내 무수한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우리가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나타나는 것은 사람, 여자, 남자, 또는 이것, 저것이라는 생각에 매달

리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건과 결합하지 않으면서 탐욕을 뿌리로 한 마음은 색, 향, 미, 촉의 대상과 개념들에 집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릇된 집중에도 오염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흡을 집중하는 것 같은 요가 수행에 전념할 때에도 일종의 집중이 있다. 그런 순간에 마음이 선하지 않을 때 그릇된 집중을 탐 탐심뿌리마음이 있다. 만약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가졌다면 그는 바른 알아차림의 성질을 모르고 있다.

먼저 그릇된 집중에 전념하면 그것이 마음과 물질의 성품들을 아는 지혜를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정사유)이 아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알아차림은 나타나고 있는 실재들의 성품을 깨닫는 팔정도의 하나인 바른 알아차림(정념)이어야 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업(행운)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실재들에

### "알아차림의 개발은 매우 미묘한 것 지혜는 매우 예리하게 나타나며

### 모든 실재를 그대로 보게 된다"

대한 바로 알아차림을 일으키는 조건을 성숙시킨다. 육문에서 육식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이 개념일 때가 언제이고 실재일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그릇된 집중은 사건과 같이 하지 않거나 또는 같이 하거나 탐욕을 뿌리로 한 마음의 대상일 수 있다. 사건과 같이 하지 않는 탐욕뿌리마음인 경우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집중은 고귀한 진리들을 깨닫는 길이라고 믿는다.

온 세상에 있는 이런 그릇된 집중이 만연한다. 사람들이 지혜가 동반되었던 유익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집중에 전념하면 그릇된 집중이다. 이것이 마음과 물질의 성질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더 빨리 개발하는 길이라고 믿을 때 그릇된 이해가 있게 된다. 위빠사나의 근원이 되는 집중은 반드시 바른 집중(정정)이다. 그것은 반드시 정법, 정혜, 정사유와 정근을 통해야 한다.

개념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상으로 궁극적 실재를 갖지 못하는 순간들에 마음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개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를 알아내야만 한다. 봄이 있거나 들음이 있으면 눈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 세워진 부처님상. 그릇된 견해와 집중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하셨다.

과 귀를 통해 나타난 것에 대해 스토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다른 감각의 문에 대해서도 같다.

마음의 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인식순간)은 색, 향, 미, 촉의 대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에 대하여 많은 다른 방법들로 생각한다. 어떤 존재가 어떤 우주나 어떤 세계에 살더라도 금생, 전생, 내생에서도 마음의 대상은 궁극적 실재이거나 아니면 개념일 것이다. 단지 여섯 가지 범주들의 대상들(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경험되는 대상들뿐이며 이들은 궁극적 실재이거나 아니면 개념들이다.

붓다도 개념들을 대상으로 경험하셨을까? 어쩌셨을까? 우선 범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해서 보면, 눈의 문의 과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난 뒤 그 사이에 잠재의식(생명연속성마음)들이 있고 방금 사라진 눈의 문의 과정의 마음들이 취했던 대상들과 같은 대상을 가진 마음의 문의 일련의 마음들이 있다. 다시 잠재의식들이 사이에 있고 난 후 나타나는 것의 모양과 형상을 생각하는 마음의 문 과정 마음들이 있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물성의 하나인 색이고 이것은, 수, 향, 촉의 사대와 함께 일어난다. 우리는 이 사대와 색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 사대가 어디에 있더라도 한 그룹의 물질에는 그들과 함께 색, 냄새, 맛, 영양소라는 물질

들이 있어야 한다. 이 8가지 물성들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이 같이 색을 사대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의 감성을 통해 색을 본 후에 색 때문에 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전체 개념을 가질 수 있어 이것 또는 저것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있다고 안다. 안색이 있으면 이로 인해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눈의 감성에 색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안색도 없어 우리가 사람, 존재 그리고 다른 사물들을 주지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개념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만약 사람들이 타자, 의자, 음식, 그릇, 접시나 숟가락 등과 같은 다양한 사물들을 알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개념들을 대상으로 가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먹이고 무엇이 먹이가 아닌지를 몰라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위 붓다의 길에 들어선 흐름에 든 자인 아라한, 아나함, 사다한, 수다원과 범부들은 경험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개념들을 실재하는 사물이라고 간주한다. 사성제에 대하여 깨달은 성자들은 모든 법들이 무아라고 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 그리고 마음의 문을 통해 일

어나고 나타나는 실재들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것이지만 개념들은 그렇지 않다. 개념들은 실재가 아니고 다만 사물을 알게 하는 수단들이다.

개념들은 우리가 나타나는 사물들의 의미를 알 때, 다양한 사물들이 무엇인가를 알 때 마음과 마음부수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들이 일어남에 대한 조건들과 현상들을 매우 주의깊게 생각해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마음과 마음부수가 없다면 개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물질적 현상들만 있고 정신적 현상인 마음과 마음부수가 없다면 개념들은 있을 수가 없다. 물질적 현상은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실재인 반면 마음과 마음부수는 대상을 아는 실재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과 마음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념들은 알려질 수가 없다. 성자들도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개념들을 가지지만 차이가 난다. 성자가 아닌 자들은 개념들을 실재들로 여기지만 성자들은 마음이 궁극적 실재를 대상으로 할 때와 개념을 대상으로 할 때를 안다.

모든 성자들은 개념을 대상으로 가지지만 그릇된 견해(사견)를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릇된 견해라는 마음부수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만약 우리가 주의깊은 고찰

이 없다면 사견을 가진 탐욕에 뿌리 마음과 사견없는 탐욕뿌리마음의 차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사견있는 탐욕뿌리마음은 모든 대상에 집착되어 있다. 오문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생각되는 개념에 집착된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이다.

이렇게 탐욕뿌리 마음은 모든 대상들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집착한다. 수다원과 일래자는 사견없는 탐욕뿌리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이 마음은 여섯 가지 대상들에 집착되지 않는다. 불환자는 마음의 문으로 경험되는 대상에만 집착이 남아 있다. 그는 색, 향, 미, 촉의 감성대상에 대한 집착이 제거되었다. 아라한은 6문의 대상으로 인한 선법도 불선법도 없다. 그는 모든 오염원들과 불선법을 제거해 버렸다. 아라한이 아닌 자도 대상들의 성질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거나 언제 대상이 궁극적 실재이고 개념인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오염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다시 생기는 조건들이 있게 된다. 대상들이 궁극적 실재이건 개념이건 간에 대상으로 인하여 기쁨과 슬픔,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있게 된다. 아라한이 아닌 자에게 어느 정도로 오염원이 일어나느냐가 그가 개발한 깨달음의 정도 달려있고, 그가 범부이거나 또는 수다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 중 어떤 성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자가 자아, 존재, 사람 또는 다양한 사물들이라는 개념에 매달리게 되어 그것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을 때, 유신견이라는 그릇된 견해가 있게 된다. 유신견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다른 몇 가지 그릇된 견해가 생겨 날 조건들이 있게 된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는지 세계와 모든 존재와 사람들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가 있게 된다. 우리가 모든 조건 지어질 실재들의 발생에 대한 조건들을 모를 때, 다른 종류의 그릇된 견해가 있게 된다.

사실상 개념들은 보통 불선한 마음의 대상이다. 개념에 집착된 탐욕뿌리마음이 있을 수 있다. 또 개념에 대해 증오하는 성병 탐욕뿌리마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싫어할 때 개념이 마음의 대상이다.

바로 알아차림의 개발은 매우 미묘한 것이다. 바로 알아차림이 개발되면 지혜가 반드시 매우 예리하게 되어 나타나는 모든 실재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붓다는 <쌍수다니까야>의 바라문경에서 오염원들은 바라문의 신령스런 흰 고삐 흰 차를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팔정도의 개발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고 하셨다. 최고의 차양은 성자의 팔정도이다. 법의 차양은 어느 것도 비길 수가 없다.



##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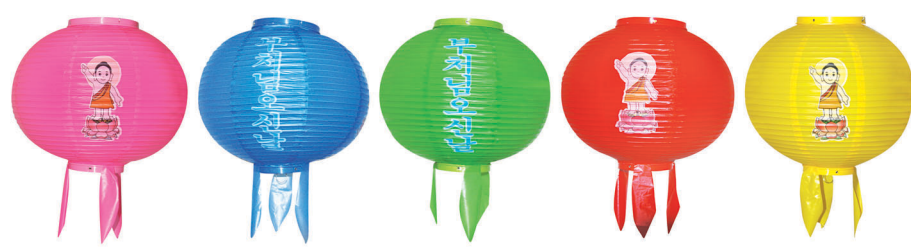
###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 만월등



### 공단등



###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 2016년 달력

###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